

##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 중국, 일본 국채 순매수 사상 최대

- 일본 금융당국은 중국이 금년 1~5월간 순매수한 일본 국채 규모가 단일기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국채를 5월에만 약 7,352억엔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남.
  - 1~5월 누적 순매수 금액도 약 1조 2,762억엔으로 급증해 단일기간 사상 최대 규모임.
  - 가장 많이 엔화 채권을 매수했던 2005년 전체 순매수 금액 2,538억엔의 5배가 넘는 국채 물량을 불과 5개월 만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작년 800억엔 규모의 일본 국채를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를 보임.
  
- 일각에서는 일본의 재정악화 및 매입능력 저하 등으로 엔화 채권가치 하락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일본 국채 대량 매입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
  - 중국 금융당국의 일본 국채 대량 매입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에 따른 미국 국채 투자의 매력 감소,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화 가치 하락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축률 하락 등으로 국채 매입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신용이 없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는 일본 국채는 위험한 투자처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이들은 공공부채 규모가 2009년 말 기준 950조엔에 달해 만성 재정적자 국가인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유럽 재정위기 확산 시 엔화가치 급락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금융당국은 일본 채권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호주, 캐나다 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늘려 투자 다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Record China, 7/13)